

침묵하는 쇼즈(Chose) : 상념에 잠긴 세라믹 수도원

백기영(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 부장), 2017

“나는 멜랑콜리하지만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이미지가 좋다.” (김명주의 작가노트)

한국에서 도예를 전공하고 2004년 도불하여 지난 10여년간 프랑스와 벨기에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주는 유럽의 주요 현대미술 도전(2009 TERRALHA 유럽 도예 페스티벌 은상, 2009 세라믹 14 파리 현대미술 도예 살롱 전 관객상/ 2014 심사위원장, 2013 스위스 제네바 아리아나 유지엄 상, 2014 벨기에 브뤼셀 캄브로 로레아트 상)을 수상하면서 최근 들어 활발하게 작품세계를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6년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이 운영하는 세라믹 창작센터에 입주 작가로 선정되면서 그녀의 작업이 소개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는데, 국내 조형도에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명주는 ‘알 수 없는’ 기이한(Uncanny) 형상을 흠으로 빛낸다. 그 기이한 형상들을 살펴보면, 슬픔에 잠겨 있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 왕관과 한 덩어리이거나 촛대 받침 덩어리의 일부가 되고 또 꽃이 되거나 시들어 버린 식물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김명주의 작품에서 ‘알 수 없음’은 ‘명확한 말로 해석할 수 없음’이지 ‘이해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녀의 작업은 한참을 멈추어 바라보고 싶게 하거나 정서적으로 깊은 공감을 유발시킨다. 그러나 막상 작업을 설명하려고 하면, 적절한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마치 발설이 금지된 비밀과 같아서 어떤 설명을 입에 떠올렸다가도 도로 집어 삼키게 한다.

그녀의 작업 앞에 흐르고 있는 침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어떤 말을 떠올리면, 다른 단어가 나와서 교란하기 때문에 끝없이 무언가가 교차하는 침묵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때로 우리는 어떤 강렬한 이미지 앞에서 ‘형언 할 길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가? 그러나 설명을 보태서 그 기이함을 더 잘 이해시킬 수 없다면 떠올린 단어를 집어 삼키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그녀의 작품들은 한편의 시이거나 서사가 담겨있는 연극의 한 장면을 마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작품들의 이야기는 이미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전시장을 돌아서 나가면 마치 다음 플롯이 전개되고 멈추었던 사물들이 살아 움직일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

김명주는 멜랑콜리하거나 몽환적인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 그녀는 자신의 작가노트에 멜랑콜리한 것은 단순히 우울한 감정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존재에 대한 상실과 질문, 잃어버린 시간, 어떠한 부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잃어버린 기억들과 연관되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깊은 감정이라고 적고 있다. 그래서 그녀의 작품들은 깊은 상념에 잠겨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들은 그녀가 상실해 버린 시간, 기억들을 내포하고 있는 ‘대상의 대용물’인지도 모른다. 작품들은 물질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상실된 대상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쇼즈(Chose)’를 잃은 상의 슬픔에 빠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는 이 ‘쇼즈’는 꿈꾸는 태양이고, 밝은 동시에 어두운 태양이라고 말했다. 최상의 행복과 표상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박탈당한 주체는 오직 그 ‘쇼즈’를 집어삼킴으로서만 그것을 형상화 할 수 있고 그 어떤 단어도 그것을 의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녀의 작품 « 내면 풍경 Paysage intérieur »시리즈를 살펴보면, « 자신의 그림자를 만지다 Toucher de son ombre », « 불멸의 앞에서 Face à l'immortalié », « 망각, 검게 변하다 l'Oubli - devenir noir »라는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시리즈는 2012년 브뤼셀의 캄브르 국립 고등 시각 미술학교에 재학할 당시부터 시작되었으며 김명주 작업의 독자적인 세계를 형성한 시기에 해당된다. 그녀는 이 시기에 비로소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작을 하고 싶은 욕망을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리즈의 첫 번째 « 자신의 그림자를 만지다 Toucher de son ombre »는 검은 머리에 왕관을 쓴 여성의 머리가 나무로 만들어진 탁자위에 세라믹 단상위에 올려 있고 꺾인 꽃들이 바닥에 깔려있는 도자 설치작품이다. 창백하게 하얀 그녀의 얼굴은 흘러내리는 유약과 투명한 세라믹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이목구비를 그려내려 간 필치는 하얀 피부를 쓰다듬고 위로하듯 가녀리게 그려져 있다. 아니 오히려 그렸다기보다는 붉고 선명한 상처 같은 얼굴은 세라믹 표면위에 지웠다 그리기를 반복한 낙서처럼 소심하게 번져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녀의 얼굴은 탁자 밑에 뒹굴고 있는 꽃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꽃들은 생명을 간직한 식물에서 굳어 버린 광물로 진화 중이다. 아마도 이 꽃들은 자기 검은 그림자를 삼킨 모양이다. 거칠게 붉은 안료가 칠해진 꽃잎의 뒤 쪽은 깊은 어두움을 간직하고 있다.

또 다른 작품 « 불멸의 앞에서 Face à l'immortalié »는 무릎을 꿇고 있는 신체와 바닥에 누워있는 신체가 등장한다. 이 두 신체는 알처럼 돌기가 많은 얼굴들로 이루어진 상반신을 갖고 있다. 무릎 꿇은 신체가 하얗고 꽃꽂한 다리로 몸을 지탱하고 있는 반면, 바닥에 누워있는 신체는 너부러진 검은 그림자를 질질 끌고 다니다 지쳐 쓰러진 형국을 하고 있다. 그의 상체를 둘러싸고 있는 알 같은 머리들은 견고한 덩어리에 균열로 깨져가고 있는 중이다. 하얗고 투명한 안료 사이로 살짝 비치는 붉은 물감의 흔적이 이 생명체의 죽음과 파멸 그리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드러내고 있다. 미술사가 할 포스터(Hal Foster)는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쓴 그의 책에서 ‘기이함(Uncann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명이 있으면서 동시에 생명이 없어 보이는 모습, 움직이면서 동시에 움직이지 않는 듯 한 모습, 베일에 가려진 에로틱한 것의 모습, 폭발적인 것이 굳어져 고정되어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연캐니를 느낀다.’ 그는 이 책에서 주체는 에로스적인 삶의 충동이 타나토스적인 죽음의 충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충했는데, 김명주의 작업들 중에서 그가 설명하고 있는 두 가지 충동이 가장 잘 함축되어 있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 망각, 검게 변하다 l'Oubli - devenir noir »는 식물인지 동물인지 알 수 없는 사물들이 군집해 있는 도자설치 작품이다. 어떤 것들은 속이 텅 비어 있는 통나무 구조 같고 어떤 것들은 봉우리를 다 피우지 못한 난초 식물 모양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군집 체들은 위로부터 아래로 검게 그을려 마치 재난을 당한 지역의 식물들을 연상시킨다. 그 옆에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모양의 식물도 함께 서 있다. 난로 모양의 나무기둥 위에 놓인 세라믹은 주전자나 가방과 같은 무기물로 만들어진 일상용품을 연상시키지만 어느 순간 이 연상은 다시 불 길 속에서 재앙을 뚫고 살아난 생명체의 몸뚱이처럼 꿈틀거린다. 이렇게 그녀의 사물들은 어떤 광경을 연기하고 있다. 뜨거웠던 생명력이 싸늘하게 식어 버린 죽음과 절망의 무서운 광경은 까마득하게 잊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무서운 형상으로 다시 회귀하는 트라우마와 같다.

각주

1>

프랑스어 '쇼즈(Chose)'는 '어떤 것'으로 번역되는 독일어 'Das Ding(the Thing)'을 의미한다. Das Ding 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기의 바깥(hors-signifi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기의 바깥과 그것과의 비장한 관계의 기능으로 주체는 자신의 거리를 유지하고, 관계의 세계 모든 억압에 선행하는 최초의 정동 세계 안에서 자신을 구성한다. 프로이트는 '쇼즈'가 외침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라캉은 말(mot)을 프랑스어의 mot 라는 단어의 양가성을 강조하며 번역한다.“mot, 그것은 침묵하는 것이다. ”어떤 말도 발설되지 않았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쇼즈'들은 침묵하는 '쇼즈'들이다.”고 했다. <같은 책 26 쪽 각주 요약>

2>

줄리아 크리스테바, « 검은 태양 Soleil noir »우울증과 멜랑콜리, 김인환 역, 동문선, 2004, 24 쪽

3>

할 포스터(Hal Foster), 욕망, 죽음 그리고 아름다움, 전영백과 현대미술연구회 역, 2005, 아트북스, 67 쪽